

# 남원시, 태양광 발전시설 난립 막는다

### 에너지전환 정책에 설치 급증 환경 훼손·토사 유출 심각 市, 거리규정 등 기준 강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남원시가 주민 민원과 환경 훼손 문제를 해결하고자 입지기준 강화에 나섰다.

13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에 태양광 전기 사업을 신청해 허가 받은 건수는 2016년 54건에서 2017년 113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 2월말까지 신청한 건수만도 564건에 달해 조만간 2000건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시설이 급증하는 것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태양광 사업을 장려하고 있는 것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시설의 증가와 함께 사업자와 주민의 갈등이 발생하고 토사 유출로 인한 인접지 피해와 환경 훼손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환경단체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 변화에 따른 것이



남원시가 태양광 발전시설 급증에 따라 발생하는 주민민원과 환경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지기준 강화에 나섰다. 남원 지역 태양광 발전시설. <남원시 제공>

지만 입지기준이 느슨한 것도 원인이라며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따라 남원시는 최근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으로 입지기준을 강화했다.

시는 먼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로 제한했던 거리 규정을 300m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이는 5000㎡ 이상의 발전시설에 대해 적용한다.

또 도로의 범위도 포장 면이 6m 이상의

2차선 도로로 확대된다. 시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태양광 난립 현상이 다소 진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장기적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개발이익이 독점돼선 안되고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난 7일 발령된 이번 개정지침은 재산권 침해 받지 않도록 시행일에 대한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기로 했다”며 “시행전 전기발전사업이 허가된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가 신청된 경우로 한해서는 이번 지침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남원=백성기자 bs8787@kwangju.co.kr

## 군산시간여행, 전북투어패스 상품 출시

전북 군산시간여행이 전북투어패스 로 전주한옥마을 등과 함께하는 관광상품을 출시했다.

군산시는 지난해 한국관광의 별 관광 매력물 분야에 선정된 시간여행마을이 전북투어패스와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간여행을 찾는 전북투어패스 소지 관광객에게는 다양한 이용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더불어 불철 해소를 위해 현재 운영되는 151개소 가맹점 외에 추가로 관광 서비스(맛집, 숙박, 제과, 체험점 등)가맹점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들 가맹점은 투어패스 관광객에게 특별할인과 양질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음달부터 군산근대역사박물관과 진포해양테마공원 등 근대역사지구

의 5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대역사문화권’을 할인 판매한다.

김성우 군산시 관광진흥과장은 “가맹점은 전북투어패스 공식 홈페이지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 다각적인 홍보마케팅이 추진된다”며 “이번 상품이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디딤돌이 되도록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투어패스는 카드 한장으로 ▲전북 14개 시군의 주요 관광시설과 60여개 유료시설 무료 이용 ▲전라북도 시내버스 무료 이용(1일권 5회, 2일권 8회, 3일권 11회 이내) ▲도내 30여개 공영주차장 최대 2시간 무료 이용(추가요금 별도) ▲1000여개 음식점, 카페, 숙박시설, 공연장, 각종 체험을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군산=백성기자 nogusu@

## 익산시 '청춘어람' 농정원 국외훈련 선정

<청년농업인 학습모임>



익산시의 청년농업인 학습모임 '청춘어람'이 지난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부안 농협연수원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익산시 제공>

### 일본 성공 사례지 방문 등

익산시의 청년농업인 학습모임인 '청춘어람'이 2018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의 국외훈련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인 농정원은 농업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년 국외훈련을 공모·운영하고 있다.

청춘어람이 응모한 현장주문화 분야는 농업 관련 단체·학습모임 등이 현장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국외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안하는 형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청춘어람은 일본의 청년농업농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민간단위의 노력,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 사례지를 방문하게 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익산형 정착지원

모형을 발굴하고 희망농정위원회에 정책제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춘어람은 매일 정기적인 학습을 통해 미래농업의 핵심주체로서 개인을 리더로 성장시키고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목표 운영되고 있다.

회원들은 지난해 4월부터 농업 패러다임의 변화, 6차산업, 조직화 등을 주제로 6회의 정기학습과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을 위한 워크숍 등을 진행해 왔다.

특히 지역 내 청년농업인들의 교류와 기부활동을 통해 배움이 실천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익산시는 청년농업인이 미래농업의 핵심 주체로 성장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간담회와 워크숍을 지원하고 현장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농업인의 고민 해결에 주력해 왔다.

/익산=유정경기자 yjj@kwangju.co.kr

## 현대삼호중공업, 친환경선박 시장 두각

세계 첫 황산화물 가스세정기 장착 원유원반선 건조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윤문균 사장)이 2020년부터 발효되는 국제해사기구(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황산화물 배기가스 규제를 앞두고 친환경선박 건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최근 세계 최초로 황산화물 가스세정기(SOx Scrubber)를 장착한 초대형 원유원반선을 성공적으로 건조하고 명명식과 인도서명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건조한 선박은 그리스 알미(Almi)사가 지난 2016년 8월 발주한 2척 중 첫번째 배다.

원유 31만톤을 적재할 수 있는 초대형 원유원반선(VLCC)으로 길이 336m, 폭 60m, 깊이 30m의 크기로 건조됐다.

선박의 방향타와 프로펠러에 연료 효율을 높이는 각종 설비를 장착했으며 국제해사기구가 규제하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 유해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한 최고급 사양으로 건조됐다.

특히 이 선박은 초대형 유조선 중 세



현대삼호중공업이 건조한 세계 최초 황산화물 가스세정기를 적용한 원유원반선. <현대삼호중공업 제공>

계 최초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가스세정기가 장착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선박에 설치된 가스세정기는 높이 11m, 폭 8.3m 규모로 배기가스를 바닷물로 세척해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장비를 활용하면 선박이 내뿜는 배기가스 중 황산화물을 기존 3.5% 이상에서 0.5% 이하로 줄일 수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대형 선박의

설치를 위해 선박의 굴뚝과 가스세정기가 설치된 하부 구조물의 크기를 340% 가량 키워 시공했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국제해사기구에서 선박 배기가스에 대한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친환경선박 건조 분야에서 앞선 경쟁력은 회사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영암=전북한기자 jbh@kwangju.co.kr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정읍시 24억 2300만원 투입

정읍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24억2300만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에게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발굴해 상담과 치료, 역량 개발 기회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약 1000명의 저소득 노인인과 아동, 청소년들에게 이용권을 발급해 모두 14개 사업 44개 분야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일자리를 창출(44개 기관)로 1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까지 이용자를 모집했으며 이들에게는 올해 말까지 지원이 계속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노인·장애인 대상 사업은 140% 이내) 이내다.

해당 시민이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면 시에서는 소득 수준과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 후 개별 통보한다.

사업 대상에 선정된 이용자는 서비스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면 시가 그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강 2중단열 지면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 A/S 정기점검 4시공후

특허공법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무로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난연소재 완전한방수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내구성UP 맞춤형디자인

특허공법·디자인방수·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 (062)511-0444 전남 (061)726-0482 H.P 010-6603-0405

검색창에 '이파엘지' |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복합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6년무상 A/S보장 정기점검

의료광고심의일 제 17073-총-83334호

100세 시대 무릎 건강!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는?

무릎의 통증의 시작은 무릎 내측의 관절 연골판 손상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관절연골 손상이 되어 안쪽이 닳아지면 간격이 줄어들면서 오다리 변형이 됩니다. 결국, 오다리 변형을 일자다리로 수술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의 고질병 허리디스크! 내시경으로 절개없이 해결 가능?

비수술적으로 대부분 치료 가능합니다. 비절개로 어깨나 무릎처럼 양측 삽입구를 통한 일반 내시경 수술로 디스크 치료가능합니다.

세심한 검사! 정밀한 진단! 가족같은곳!

**첨단우리병원** 비수술, 부분마취, 척추관절 치료!

대표전화 |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 공원 앞 위치!